

“재난 우려 지역 밀착 관리”...전남도, 535곳 지정

장마철 앞두고 이달 ‘재해대책 사전 대비의 달’ 운영 인명피해 대비 지구별 담당자 지정 사전점검 등 관리

전남도가 자연재난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535곳을 지정하고 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 사전점검, 주민 대피 등 밀착관리에 나선다. 또 전남지역 지하차도 20곳에 대해선 사전통제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 경찰 등이 참여하는 ‘5인 담당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차단시설 작동, 배수 소등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최근 이상기후로 역대 최다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장마철을 앞둔 5월을 재해대책 사전 대비의 달로 운영,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기상청은 지난 15일부터 위험기강(50mm/h·90mm/3h) 발생 시 읍면동별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산사태에 대비해 지난 4월 취약지역인 광양 점동마을 일원에서 마을 주민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2024년 산사태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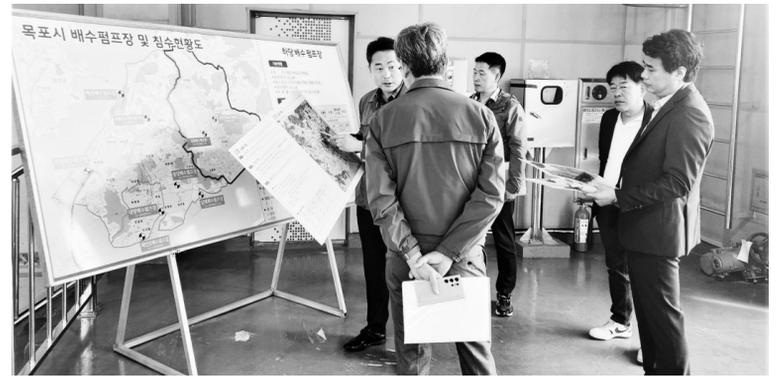
전남도는 또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정비해 도 13개 협업기능 27개 담당부서

와, 22개 시군, 전남도교육청 등 26개 유관기관에 배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육군 31보병사단과 서해지방경찰청, 전남경찰청에 여름철 풍수해 대응 군·경 인력·장비 동원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도 요청했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사태 취약지, 인명피해 우려 등 재해 취약지역을 확대 발굴하겠다”며 “재해 취약지역·시설과 공사 현장 등의 재해대책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 시군과 공동으로 산사태 매몰사고 신속 대처 방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자연재난과와 목포시 직원들이 최근 목포 배수펌프장을 찾아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사회복지사대회 개최 “행복 시대 만들기 앞장”

‘상상 그 이상’ 주제 1천여명 참석

제10회 전남사회복지사대회가 지난 17일 목포시 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상상 그 이상’이란 주제로 열려 참석자들이 전남 행복시대 만들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사진>

‘상상 그 이상’은 전남 사회복지사가 ‘상상 그 이상’의 값진 일을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사회복지 발전을 힘차게 이끌자는 의미다.

행사에는 박찬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박홍용 목포시장,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병관 전남사

회복지사협회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22개 시·군 사회복지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사회복지사대회는 2015년부터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재정의하고 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행사는 정병관 사회복지사협회장의 대회사, 박찬환 부지사의 기념사, 사회복지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 ‘상상 그 이상’ 주제공연과 사회복지사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치, 미래, 행복, 감동, 복지’로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알

리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했다.

전남도는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정의 무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기근속유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상해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에 앞장서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는 1998년 10월 창립해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보수교육, 처우 개선 등 사업을 하고 있다. 전남지역 1만2000여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기농 1번지 나주’서 전국 친환경농업협회장 첫 이사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첫 사·도별 순회 이사회가 지난 14일 유기농 1번지 나주에서 열렸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이사회 임원은 올해 초 선출된 제5대 김상기(경기) 회장과 정만균(완도) 부회장, 유장수(곡성) 친환경농산물무자조금관리위원장 등 감사(2), 단체 대표(7), 지역 대표

(11), 농협 대표(3) 등 총 26명의 제3기 대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친환경농업 권역별 순회 의무교육 추진 계획과 6월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유기농데이 기념행사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또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결과와 분석’에서 ‘과정과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

하고 논의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내 친환경농업을 대표하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정기가 사회가 유기농 1번지 전남에서 개최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전남친환경농업협회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협력 강화 교류를 마련한 만큼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농수산물 영업사원’ 김영록 지사

미국 유명 셰프 초청 백양사 공양행사서 전남산 세일즈맨 역할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장성 백양사 천진암에서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미국 유명 셰프 에릭 리퍼트 초청 공양행사에 참석해 조미김과 김부각 등 전남 농수산물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양행사에선 미국 뉴욕 미술랭 3스타 레스토랑인 르베르나르망의 오너 셰프이자 미국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에릭 리퍼트를 초청, 김 등 지역 제철 식재료로 사찰음식을 만들어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행사에는 뉴유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담 스님, 장해춘 세계김지연구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관스님에게 “김 등 지역 식재료를 이용해 사찰음식의 진수를 보여주고, 올해부터 3년간 추진 중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주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75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에릭 리퍼트 셰프에게 “미국 냉동김 밥 등 케이(K)-푸드 열풍에는 대한민국 김 생산의 약 80%를 생산하는 전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남의 농수산물 등 남도음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면서 전남 농수산물의 세일즈맨 역할을 독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공공·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6월 28일까지...아이디어 기획·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전남도가 공공·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4년 전라남도 공공·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빅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복합해 행정 서비스 개선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은 6월 28일까지 전남도 대표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다. 접수한 공모작은 전문가 평가위원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분야별 우수 2점·장려 2점을 선정한다. 수상자(팀)의 경우 대상과 우수상은 전라남도지사 상장, 장려상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상장을 수여한다. 분야별 우수작은 행정안전부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전남도 대표로 참가하게 되며, 사업화를 위한 보완사항 자문, 기술특허 및 저작권 등록 컨설팅과 마케팅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조석훈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빅데이터 활용이 확산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데이터 관련 창업이 활성화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가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가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가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